김태균 "인생은 생방송, 오늘 행복합시다"

SBS 간판 라디오 방송 '두시탈출 컬투쇼' 15년
"기다리는 청취자 생각하며 방송 사명감 강해져"

"재미, 자연스러움, 현장감. 그게 '컬투쇼'를 15년간 이어온 동력이 아닐까요?"

SBS파워FM(107.7㎒)의 간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의 DJ 김태균(48·사진)은 장수 프로그램이 된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최근 전화로 만난 김태균은 "'컬투쇼'는 시작부터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시도하지 않았던 방청객들과의 공개방송을 택했다.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소통하면서 현장감을 살릴 수 있었다. 방청객들을 재밌게 해드리면 청취자들도 즐거워지는 패턴이 있다"고 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라디오 DJ였기 때문에 꿈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걸 하고, 방청객들도 즐기러 오시는 거니 서로 행복한 것 같아요."

김태균은 "꾸준함의 비결은 역시 사명감인 것 같다. 돈 버는 직장이라는 느낌보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에 사명감을 느끼면서 방송한다"고 말했다.

'컬투쇼'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으니 역시 '영혼의 단짝' 정찬우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찬우는 3년 전 공황장애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김태균은 정찬우의 복귀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직 전혀 답이 없다. 그런 점이 아쉽긴 하다. 팀에서 나오는 호흡으로 인해 배가 되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컬투쇼'는 역시 청취자들의 사연을 먹고 산다. 배꼽 빠지는 사연부터 가슴을 울리는 사연까지 갖가지 사연들이 '컬투쇼'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김태균은 현시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코로나19로 우울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으로 '컬투쇼'를 추천한 정신과 의사와, 남편과 '컬투쇼' 방청을 온 임신부가 웃다가 양수가 터져 출산하러 갔던 에피소드를 꼽았다.

"사연을 하나만 고를 수가 없네요. 셀카봉을 처음 개발한 사람도 우리 청취자예요. 유럽 여행 가서 현지인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카메라를 들고 튀었다는 사연을 듣던 청취자가 개발해냈어요. 그 회사 사옥에는 컬투 사진이 붙어있다는 군요. (웃음) 잃어버린 차량을 찾아준 적도 있고, 한강 다리에 가신 분을 살린 적도 있어요. 정말 끝이 없죠."

김태균은 15년간 프로그램을 사랑해준 청취자들을 향해 "라디오를 하면서 느낀 건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것"이라며 "하기 싫다고 오늘 안 할 수는 없고 내일로 미뤄서 방송할 수도 없고 하니 그날 방송을 즐기고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본인 인생의 DJ인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소중한 하루의 2시간을 함께해주는 친구고요.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2시간은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놀아드릴게요." 연합뉴스

영화 '슈퍼노바' 연합뉴스

생의 마지막에 가장 빛나는 '슈퍼노바'

콜린 퍼스·스탠리 투치 주연
사랑과 삶의 이별 들여다봐

슈퍼노바(supernova. 초신성)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밝게 타오른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찾아온다.

20년 동안 연인이자 최고의 친구로 지낸 피아니스트 샘(콜린 퍼스)과 작가인 터스커(스탠리 투치).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며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는 터스커와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돌보는 샘은 캠핑카를 타고 광활한 잉글랜드 북부로 여행을 떠난다.

터스커는 샘을 위해 샘의 고향 집에서 친구들과 깜짝 파티를 마련하고, 샘은 그런 터스커에게서 불안을 느낀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지로 살려고 하는 터스커는 자신의 선택이 두 사람을 위한 길이라 확신하고,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고통과 슬픔에 무너져내리고 있는 샘은 자신의 선택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예정된 이별을 앞둔 연인의 애절함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고 죽음과 이별을 준비하는 태도까지 가만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건 콜린 퍼스와 스탠리 투치, 두 배우의 더할 것 없는 연기 덕이기도 하다.

배우 출신으로 두 번째 작품을 선보인 신예 해리 맥퀸 감독은 실수가 잦아진 동료가 해고된 지 6개월 만에 사망하고, 친구의 아버지가 60세의 나이에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들어간 자신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시나리오를 썼다.

18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스탠리 투치가 먼저 출연을 결정하고, '컨스피러시'(2001) 이후 친분을 이어온 콜린 퍼스에게 시나리오를 건넸다. 애초 스탠리 투치가 샘, 콜린 퍼스가 터스커 역이었지만, 퍼스의 제안에 역할을 바꿨다고 한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콜린 퍼스의 연주로 새롭게 들린다. 5월 12일 개봉. 연합뉴스

강렬한 극성으로 뒤덮인 요즘 드라마들

자극적 전개·초현실 캐릭터
'현실 부정' 역효과 우려도

왼쪽부터 모범택시의 이제훈, 대박부동산의 장나라, 빈센조의 송중기. 연합뉴스

주요 인물이 죽으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제 흔한 전개가 됐고(펜트하우스·오케이 광자매), 사이코패스나 초인에 가까운 능력자도 일반적인 캐릭터(빈센조·모범택시·대박부동산)가 됐다. 요즘 안방극장은 강렬하고 자극적인 전개와 캐릭터들만이 살아남는 분위기다.

시청률 고공행진 중인 SBS TV 금토극 '모범택시'는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범죄들을 소재로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과 등장 인물들은 초현실에 가깝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울분을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시원하게 날려주는 비범한 택시 기사 김도기(이제훈 분)는 그야말로 다크 히어로다.

택시 기사지만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장교 출신인 그는 냉철한 설계 능력과 뛰어난 무술 능력으로 '공공의 적'들을 가뿐하게 해치운다.

최근 나란히 시작한 수목극 KBS 2TV '대박부동산'도 자연스러운 공감보다는 극성을 살린 경우다.

'대박부동산'은 최근 모두의 관심사인 부동산에 '퇴마'를 얹었다. 재개발 등 현실적인 이슈를 원귀와 지박령 등 전통적인 공포 소재와 접목해 드라마 요소를 강화했다. 여러 기구한 사연을 가진 귀신들과 긴장감을 주는 공포와 액션 장면들이 특징이다.

이밖에 끝을 향해 달려가는 tvN 주말극 '빈센조'는 이탈리아 마피아 콘실리에리가 국내 사건에 휘말린다는 전개로 강렬함을 살렸다.

이렇듯 최근 드라마는 인위적인 설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2일 "의심하고 풀리는 과정, 불륜 코드 등은 극성을 살리기 위해 상투적으로 쓰는 '드라마트루기'(dramatugy·극작술)이지만 최근 '빈센조'나 '모범택시' 같은 것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스토리를 그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지만 그걸 너무 현실적으로 다루면 보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다크 히어로를 내세워 판타지로 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장치가 과도할 경우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희정 드라마평론가는 "요즘은 도가 지나친 느낌이 있다. 많은 캐릭터가 과도한 능력자로 포장됐고, '설정'은 가속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과 사회 시스템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특이한 방법으로 해결해주려는 측면이 있겠지만, 거꾸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역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수사 착수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그우먼 박나래가 웹 예능에서 한 성희롱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제작사 측에 요청해 영상자료를 받았다"며 "영상 전후 상황을 살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앞서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영상에서 박나래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11:50 불편해도 괜찮아 11:55 한국의 인류유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속아도 꿈결(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영화가 좋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손현주의 간이역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모르파티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두다다쿵 8:00 딩동댕 유치원 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9:40 우리집 유치원 12:10 아주 각별한 기행 14:10 EBS 다큐프라임 15:15 클래스 e 16:30 딩동댕 유치원 17:00 EBS 뉴스 17:35 포텐독 19:05 드래곤 길들이기 19:3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보물섬(재) 15:20 콘텐츠 안테나(재)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연중 라이브(재)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롱롱주겠지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0 류수영의 동물티비(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시크릿 쥬쥬 별의여신 12:50 뽀뽀뽀 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캠핑 인 코리아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릭! NOW 제주(재) 16:30 맛있는 제주 만들기(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네모세모	**제주 CBS FM 93.3㎒ 90.9㎒**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업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속아도 꿈결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21:30 오월의 청춘 22:10 오월의 청춘 22:40 개는 훌륭하다 1부 23:35 개는 훌륭하다 2부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안싸우면 다행이야 1부 22:00 안싸우면 다행이야 2부 22:45 가정의 달 특집 100분토론	18:50 생방송 투데이 1부 19:20 생방송 투데이 2부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1부 21:40 생활의 달인 2부 22:15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3:05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2부 23:55 나이트라인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8:30 방송콘텐츠경연대회 수상작 9:00 KCTV 뉴스 9:30 TV 다큐스페셜 12:30 KCTV 시청자세상 13:10 TV 다큐스페셜 14:00 취미로 먹고 산다 15:20 마음의 고향 시골장터 17:00 KCTV 뉴스 20:00 TV 다큐스페셜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3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다양한 생각으로 고민이 많다. 48년 자녀문제로 애·경사가 있거나 소식이 오면 상면하라. 60년 음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운전은 자제. 72년 좋은 만남 또는 소개가 있다. 좋은 소식이 오면 외모에 신경 쓸 것. 84년 자기 감정조절이 필요하며 재물에 이익이 따른다.

37년 감언이설에 고민. 보증을 서면 불리하니 보류하라. 49년 집안의 어른으로 인한 근심과 우환이 있다. 병문안 또는 상가를 갈 일이 있다. 61년 동업, 협조자가 생긴다. 재물 이익이나 매출 증가. 73년 기대하지 않던 기쁨이 있고 약속이 이뤄진다. 85년 변덕스런 마음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면 좋은 답이 온다.

38년 음식 또는 친목을 함께하거나 손님을 초대할 일이 생긴다. 50년 재물 또는 인복이 약하니 보증이나 금전거래는 정중히 거절하라. 62년 모든 일을 꼼꼼히 챙길 것. 교육분야업은 진전이 있다. 74년 샐러리맨은 의욕저하가 올 수 있다. 86년 한가지 일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것.

39년 마음을 달래줄 벗 또는 손님이 찾아온다. 음주는 적당히. 51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구설 또는 불화가 생기니 이성적 교제는 신중. 63년 반가운 소식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있다. 75년 친목 또는 쇼핑으로 귀가가 늦어진다. 87년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거래는 신중하는 것이 좋다.

40년 자기의 역사는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 52년 소신껏 일을 추진하면 의외의 결과가 있다. 64년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좌불안석이다. 자녀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76년 의욕,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88년 새로운 마음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라. 인기직업은 갈 곳이 많아진다.

41년 과격한 행동은 건강에 해가 되니 무리한 행동은 금물. 53년 집안어른에게 우환 또는 상가에 갈 일이 있다. 안부전화를 주거나 방문하라. 65년 대인관계는 사회생활의 원천. 친목 도모 필요. 77년 직업·취업으로 근심이 있고, 미혼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다. 89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고심이 있다.

42년 동업, 협력의 일이 생기고 기쁨이 온다. 54년 매매나 문서를 주고 받을 일이 찾아온다. 66년 의욕과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 원함. 78년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소신껏 추진하라. 자격증이나 공동사업이 원만. 90년 행복해지도록 자기최면 연출이 필요하다. 웃다보면 즐거움과 행복이 온다.

43년 자녀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한다. 먼저 자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 55년 직장의 스트레스, 사업장의 걱정이 가정에서 눈 녹듯이 해결. 67년 지친 몸이 휴식을 원하나 오후에 약속이 잡힌다. 79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니 모임 시 귀가는 늦지마라. 91년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라.

44년 이동, 변동 이사, 창업 등 마무리에 바쁘다. 56년 부부간에 불화나 부모님께 근심이 생긴다. 찾아뵙는 것도 좋다. 68년 집안일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 드려라. 내 힘이 필요하다. 80년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실수, 망신수 조심해야. 92년 결혼과 관계된 일로 상의가 있거나 형제간에 친목이 생기기도 한다.

45년 자유가 그리운데 갈 곳은 마땅치가 않다. 57년 나의 일로 고민할 것인가, 자녀문제로 고민 할 것인가. 69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오거나 소식을 접한다. 81년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93년 마음이 넉넉한 자는 풍요롭다. 부족을 채우려고 고민하지 마라.

46년 모임이 있으면 핑크색 옷을 입으면 우러러 본다. 58년 이동 이사가 있거나 변화가 생긴다. 부부간 언행 자제. 70년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정보력을 동원할 것. 82년 직장인은 윗사람 칭찬이 있고 실업자는 희소식이 있다. 94년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봉사할 일이 주어진다.

47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질투할 일이 생긴다. 59년 시댁 또는 처가에 갈 일이 생긴다. 다만 언행은 조심할 것. 71년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 83년 노력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이익이 있고 결과가 있다. 95년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순리대로 행함이 좋은 하루.